

# 순창장류축제 준비 본격화

###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 가족단위 관광객 체험프로그램 대폭 강화

제11회 순창장류축제가 70가지 풍성한 프로그램과 관광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최우수 축제로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순창군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진행되는 제11회 순창장류축제 프로그램 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올해 장류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상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군은 그동안 휴여져 있던 장류관련 프로그램을 집약한 '전통장류 상설 체험장'을 축제장 전면에 배치한다. 상설체험장에서는 전통장류소스만들기, 우리가죽 매운 떡볶이 만들기, 캐러터 메주만들기, 콩을 활용한 전통놀이마당 등 전통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사 내내 즐길

수 있다.

70가지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강화 외에도 올해 축제는 관광객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

군은 지난해 읍내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해 호평을 받은 셔틀택시를 노선과 횟수를 대폭 늘려 운영한다.

특히 축제의 큰 볼거리인 토굴형 저장고와 민속마을 상단부와 축제장 주무대의 거리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용 전기차'를 운영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곳곳에 관광객 쉼터도 마련하는 세심한 주의도 기울였다.

또 장류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동양 최대의 토굴형 저장고는 세계의 다양한 소스와 순창군인들이 직접 담가 만든 소스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고추나 매운음식을 등급별로 나눠

체험하는 '국가대표 매운맛 대회'를 개최해 장류축제만의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읍면농악경연대회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퍼레이드를 가미하고 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은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 참여율도 높인다.

또 전라북도 공연상 상주단체 페스티벌도 진행되는데 드림필오케스트라, 타악연희원아귀, 전북발레시어터, 달랏 마을 등의 예술공연도 장류축제의 다양성에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황숙주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 3년 연속 우수축제인 순창장류축제 올해는 더욱 다양해진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로 한층 더 풍성해졌다"며 "특히 관광객들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편의성을 더욱 강화한 만큼 장류축제에 꼭 한번 들러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낙농사업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갖춰야”

###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 5분 발언서 치즈산업 발전 대책 촉구

임실군의회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다 선거구·사진)은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실 치즈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김왕중 의원은 먼저, 임실치즈 산업발전의 기본인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 "임실군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사육 낙농가 수가 50농가로 3년의 인구대비 0.18%에 불과하여, 임실군의 주요산업으로 경제성과 발전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4월에 지정받은 임실치즈 낙농특구의 주요 추진내용으로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낙농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악취발생과 사육거리제한에 따른 대상지의 환경적 제약과 낙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며, 신규농가가 1일 1톤 생산규모로 진입하기 위해서 투자해야할 소요예산이 9억 원에 이르므로 임실군에서는 낙농특구지정에 따른 확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설정과 방법에 있어서 다각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로 임실치즈 낙농 산업의 가공유통 판매와 관련해서는 "차, 3

차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목장형 유가공공장의 시설보완과 유통판매망 확대 지원을 늘려야하며, 대형 유가공 업체인 푸르미 우유와 임실치즈 농협, 임실치즈치즈파자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무엇보다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실치즈'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안으로 "오는 10월 6일에서 10월 9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임실치즈 축제에 지속적인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머물고 가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브랜드 명성에 버금가는 연계산업 발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숙박시설 확충, 육점호 개발은 물론, 관광 문화자원 개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사회복지대회 성황리 마쳐

제11회 순창군사회복지대회가 21일 장미에식장 2층 연회장에서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권오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활동가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풍산면주민자치회의 난타 공연팀 '산물'의 축하공연이 진행돼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부 행사에서는 전남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정미자 교수가 '좋은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 및 지역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고 2부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 증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노력과 헌신 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12명을 표창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의장은 장원원씨, 순창군수상은 채순임씨, 군의회 의장은 김민해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상은 이명순씨,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은 소명자, 이명노, 최전택 씨가 각각 수상했다. 순창군 사회복지

협의회장상은 강현숙, 박미순, 신운우, 전광순, 천장순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부 행사에서는 화합과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복지활동가들의 만남의 자리가 진행돼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가 됐다.

한편 2001년 창립된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는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11회 사회복지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권오준 회장을 중심으로 좋은 이웃들, 사회복지심부름센터, 기초푸드뱅크, 행복농촌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모양성제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제43회 고창모양성제'의 성공개최와 문화관광 우수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마스터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고창읍성과 고창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3회 고창모양성제' 개최를 앞두고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상호 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 소 주무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각 실과소와 읍면별로 담당 업무와 진행상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향후 추진 발전방향 등 토의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모양성보존회에서 도 참석해 담당업무 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맡은 임무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부군수는 "고창군의 대표축제이며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고창모양성제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창모양성

제만이 가진 특색 있는 분야를 더욱 개발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3회 고창모양성제'는 '역사는 미래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며 주민과 관광객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축제로 고창군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실 있는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군은 다음 달 4일 2차 보고회(현장 점검)를 거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소송·사선문화상 대상 조상헌 명창

### 25일 시상식... 특별상 서창훈씨·농업부문 박태석씨 등

전북의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임실 소송·사선문화제전위원회(위원장 양영두)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소송·사선문화제전 행사가 진행되는 일정을 사선대 제전위 사무실에서 2016년 제25회 소송·사선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에 조상헌(77) 명창을 특별상에 서창훈(55) 전북일보사 회장을 선정했다.

또한 본상 농업부문에 농업인을 위해 헌신한 NH농협 부회장 박태석(57)씨를 모범공적자부문에 지역과 문화발전에 앞장선 유근기(55) 전남 곡성군수를 교육부문에 못 배운자를 구제하는데 봉사한 교육자 이현구(84)씨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공헌한 홍옥녀(56)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보건복지부문에, 통일·안보부문에 제7287부대장으로 취임 후 지역발전을 위해 민과 군이 상생하는 군인상을 보여준 서민석(51, 육군대령) 제6관악창장을, 향토봉사부문에 기초의원으로서 농촌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노

력·봉사한 문홍식(60) 7대 임실군의회 의장을 수상자로 확정·발표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4시 30분 전북 임실군 관촌면소재 국민관광지 사선대 광장 특설무대에서 갖는다.

2016년 제54회 소송·사선문화제행사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임실 사선대국민관광지, 전주일원에서 진행되며 제30회 사선녀선발 전국대회, 사선녀선발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공연, 제22회 국회 의정상 전국호남좌도농악 경연대회, 사선가요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개막축하 특별공연, 방송사축하공연과 함께 농민과 도시민이 어울리는 다채로운 향토문화축제 행사가 전설의 고장 임실사선대에서 펼쳐진다.

조각공예 만들기, 축협 참여우편매장, 치즈만들기 등 각종 체험코너와 특히 전북도민과 임실군농민들이 생산한 특산물 판매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어린이 생태놀이터 준공현장 방문·간담회

### 보육발전방향 논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어린이 생태놀이터가 조성됨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지역 내 보육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육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1일 어린이 생태놀이터 현장에서 열린 '어린이 생태놀이터 현장방문 및 보육인과의 간담회'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생태놀이터 현장에서 진행됐다.

지난 9일 개장해 운영 중인 어린이 생태놀이터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4,000㎡(1,200평)의 놀이시설로 조성돼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이나 놀이 어린이집 내에 조성된 놀이터는 흙, 모래, 나무 등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놀이공간, 모험공간, 개방공간 등으로 조성돼 개장 이후 많은 어린이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놀이터 준공현장을 방문

해 놀이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놀이터의 많은 이용과 홍보는 물론 공용시설물을 내 시설처럼 아껴 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민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언제부터 지원가능한지 ▲어린이집 난방비와 차량운영비 추가 지원 건의 ▲어린이집 주변 폭설시 제설작업 건의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어린이집의 안정된 운영, 보육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관내 공중화장실 공기살균정화 설치

### 유명관광지 영상 부착 설치

남원시는 올해 관광지를 비롯한 관내 공중화장실에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원을 알릴 수 있는 유명관광지 영상이 부착된 공기살균정화기 배를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관광자원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여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와 안전확보를 위해 취약지 여성공중화장실 20개소에 1,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화장실 세면대 옆과 좌변기 칸막이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여성이 화장실 이용할 때 신변위협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각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버튼을 누르면 경찰등과 경보음을 발생시켜 경찰과 연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내년도에는 전체 공중화장실에 적용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관광도시로서 공중화장실 위생과 청결은 물론이고, 비상벨 설치로 여성범죄로부터 안전 확보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화장실 비상벨이나 경찰등 작동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112 신고로 안전한 관광남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교육

임실군은 축산농가 대표자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교육'을 지난 22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다.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도 가족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비롯해 준공검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 6차에 걸쳐 670여명을 대상으로 임실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역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관련 절차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가족분뇨 배비의 부속도 측정기준 등이 신설돼 오는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처 사항 집중 교육을 통해 생활환경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근절에 앞장섰다.

군 관계자는 "법을 시행에 따라 기한 내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가족분뇨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양도, 합병 및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한 달 이내에 지위승계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성과관리 내부평가단 위촉

순창군이 행정조직의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균형성과관리(BSC)제도를 도입하고 고정한 평가를 위해 행정경협이 풍부한 6급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 내부평가단'을 위촉했다.

관련해서 군은 지난 21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내부평가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016년 지자체 체제평가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군은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한 내부평가단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내용을 특화해 해 줄 것을 요청해 성과관리의 목표 설정부터 평가요령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내부평가단이 앞으로 부서에서 설정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부서별 성과관리의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등 그 임무가 막중한 만큼 직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순창군 내부평가단은 앞으로 긍정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협의를 통해 부서 및 직원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상호 경쟁이 아닌 윈윈하는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임실군은 관내 불법 광고물 추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

군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허가번호, 기간, 제작자명을 표기할 실명제 스티커를 광고물 신고필증 교부 시 배부할 방침이다.

실명제 스티커 부착으로 불법광고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광고주와 제작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광고주와 업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신고 후 부착 가능한 지정계 시대는 12개 읍면에 40여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